만나고 싶었습니다

겸당(謙堂)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



겸당(謙堂)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은… 1978년 문인화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후 서예와 고려사경을 함께 익히며 50여 년간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사경을 '문자사리, 곧 법사리'라 규정하며 단순한 필사가 아닌 수행으로 실천해 왔다. 중봉 운필법을 통해 불교의 중도 사상을 체득했고 '부처님 말씀을 장엄하고 그 공덕을 회향한다'는 원력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왔다. 탄허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경 공모전 대상, 직지 국제사경공모전 대상, 동아국제미술대전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전 심사위원과 각종 서예대전 심사를 맡았다. 북경 초대전, 인도 마더 테레사 기념관 벽화 작업 등 해외 활동도 활발히 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한명인에 이어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선정됐다. 2023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인전에서 '영골사리 부도비문', '금강경 오가해', '화엄경 약찬게' 등 50여 점을 선보였다. 현재 양산 신평마을에서 전통사경연구원을 운영하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통 사경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경전을 법사리로 빚는 붓끝의 수행

붓끝에 부처님 말씀 법사리로 새기다
병고의 시련에서 다시 붓을 잡은 인연
중봉 필법을 통해 느끼고 터득한 중도
사경에 수행·신앙·예술적 경지 담아
한글 사경으로 누구나 쉽게 읽도록
우리 전통 사경문화, 인류의 유산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경전은 곧 법신이며, 그 글자는 법사리다.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은 반세기 넘게 붓끝에 생명을 불어넣어 법사리를 새겨 왔다. 서예와 문인화로 단련된 붓끝은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전통 사경으로 피어났고, 그의 하루는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일로 채워졌다. 그에게 사경은 예술이자 수행, 곧 삶이었다.

사경이 어떻게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듣고자 8월 26일 양산 통도사 인근의 전통사경연구원을 찾았다. 연구원에는 묵향이 은은히 감돌고 벽면에는 직접 쓰고 그린 경전과 변상도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푸른 저고리에 붉은 고름을 맨 오현주 원장은 차분하게 차를 내어 주며 맞이했다. 표정은 담담했으나 사경 이야기가 시작되자 눈빛이 반짝였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듯, 저한테는 먹을 갈고 경전을 쓰는 게 일상이에요. 사경 정진으로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병고 속에서 만난 사경의 길

1978년 서예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그는 문인화를 함께 익히며 서화가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전시와 입상을 거듭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외형적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곧 공허함을 느꼈다. 서예와 문인화 중심의 작품은 한동안 멈칫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닥친 병고가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여섯 해 동안의 간암 투병에도 늘 경전을 가까이 두었던 것이 사경의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필사였으나, 그 단순한 '옮겨 씀'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가라앉는 체험을 했다.

"붓 잡을 힘조차 없을 때도 경전을 한 자 한 자 쓰면서 제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의 고통은 오히려 그를 붓 앞으로 강하게 이끌었다. 예술을 추구하던 붓은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수행의 붓이 됐다. 사경 공덕으로 입은 부처님 가피를 회향하는 길이기도 했다.

사경, 수행과 예술을 잇는 다리

오현주 원장이 후학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경의 핵심은 서예와 마찬가지로 '중봉(中鋒) 필법'이다. 붓을 바르게 세워 중심을 잡아야만 선이 곧고 기운이 흐른다. 중심을 잃으면 글자의 모양과 맥이 흔들리듯, 사람도 한쪽으로 기울면 쉽게 무너진다.

중봉은 필법을 넘어 마음의 작용을 드러낸다. 마음이 향하는 바에 따라 획마다 천차만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바른 뜻이 살아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오현주 원장은 말한다.

"중도의 삶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한 획을 쓰는 과정은 곧 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된다. 중봉으로 써 내려간 글씨는 선이 고르고 맥이 순리에 맞아, 자유롭고도 힘 있는 기운을 드러낸다.

작품에 담긴 불연(佛緣)도 눈길을 끈다. 그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탁본 작업을 보던 중 어떤 끌림으로 비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경해야겠다고 발원했다. 혜남 스님(전 통도사 율주)과 관정 스님(통도사 금수암)의 자문을 바탕으로 전통 고려사경으로 완성한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사경 작품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인전에서 공개돼 많은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정토 신앙의 핵심을 담은 '변상도 있는 불설아미타경' 사경에 얽힌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오 원장은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불설아미타경〉을 사경하던 중, 한순간 자신을 잊는 경계를 체험했다. 완성된 작품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시에 초청돼 처음 공개됐는데, 현지 불자들이 합장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사경 작품이 국경을 넘어 불심(佛心)을 일으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전통 고려사경으로 완성한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사경 작품 표지(왼쪽). 표지는 감지금니(紺紙金泥)로 재현, 장엄했다.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속지(가운데와 오른쪽). 비문 내용을 사경하고 현대인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옮겼다.



오 원장은 창원 성산아트홀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2024년 고성박물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열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사진은 2024년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초청 전시 '환희의 정원' 당시 무비 스님(사진 가운데)과 함께 한 기념사진.(오른쪽 두 번째 오현주 원장)

이 작품에는 특별한 사연도 따랐다. 한 어머니가 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작품을 구하러 왔다. 중학생 아들이 물에 빠진 여학생 둘을 구하고 큰 장애를 얻었다는 사연을 들은 그는 "사경 작품은 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모셔다 기도하시라"며 작품을 건넸다. 어머니의 간절함과 부처님의 가피로 점차 아들의 상태는 좋아졌고, 그 후 작품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다.

한글 사경, 불법을 널리 전하는 통로

오 원장은 그간 창원 성산아트홀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2024년 고성박물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열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전시에서 그는 '금강경 오가해(고려 변상)', '청대 오백나한도', '불설지장경' 등 수천 자에 이르는 두루마리 대작을 비롯해 감지에 금니로 작업한 '묘법연화경 변상도',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금강경 탑다라니' 등을 발표했다. 또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규장각본)'와 통도사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재현 작품 등 90여 점을 공개하며 사경이 단순한 경전 필사가 아닌 예술·수행·신앙적 경지임을 보였다.

최근에는 한문 변상도에 한글을 곁들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한문 경전뿐 아니라 〈훈민정음〉, 〈월인석보 언해본〉 등을 한글로 사경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강경', '화엄경(약찬게)', '부모은중경', '경허선사발원문', '능엄경' 등 많은 작업이 그의 손끝에서 한글로 새겨졌다.

오 원장은 전통 사경 기법을 이어가면서도 누구나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원력을 두고 있다. 그는 "경전이 아무리 장엄해도 읽지 못하면 마음에 닿을 수 없다"며 "한글 사경은 불법을 널리 전하기 위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전통사경'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되길

개인 작업 외에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사경 실에는 늘 묵향이 감돌고,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싣는다. 그는 후학들에게 "사경은 글자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자리에서 화합하고 모든 글자와 그림과 선에 '참마음'을 새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는 사경이 수행과 전승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나아가 전통사경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사경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을 거쳐 이어져 온 천년의 전통이지만, 지금 그 맥을 온전히 잇는 이가 귀하기 때문이다.

"사경은 천 년을 이어 온 전통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글자를 옮기는 일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자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전통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들이 붓을 잡고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